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검정교과서 “과학” 및 “지구과학” 검토

양승영

(경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새로 출간된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6책,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 교과서 각각 3책씩 검토한 결과를 발표한다.

내용 검토의 대상은 본인의 전공영역과 관계된 지질학과 특히 고생물학 영역에 한정하였다. 검토 결과 대체로 다음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다.

- 1) 이제까지의 교과서와 대조적으로 화려한 천연색 그림이 많다는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 2) 시대연대 표기 숫자가 같은 교과서 내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자주 눈에 띈다.
- 3) 문장 표현이 모순된 것들이 발견된다.
- 4) 화석 사진이 출처불명의 외국산의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
- 5) 노두 사진 역시 출처불명의 외국산의 것들을 보여준다.
- 6) 그림 표시가 잘못된 것들이 눈에 띈다.
- 7) 탐구 실험 내용이 실제로 시간만을 소비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교과서는 편집 체제나 화려함보다도 올바른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번 새로운 교과서가 출간될 때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이 지적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저자의 무성의와 무지 외에 다른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내용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검정과정을 거치는데도 시정되지 않음은 교과서 검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시간의 검정으로 검정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검정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즉 검정에 참여해야 할 인사들은 거의 저자로 참여함으로써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검정에는 교과서에 무관심한 인사들이 차출되어 참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정위원에게 저자 못지않은 충분한 보상을 주고 검정 실명제를 도입하여
검정위원이 책임지고 세심하게 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검정교과서, 지질학, 고생물학, 검정과정